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7권 3호, 2011,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No. 3, 2011, pp.101~124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Young Children's Basic Habits Development by Parents'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Basic Habits and Parenting Styles

김송이(Kim, Song Yee)**

본 연구는 유아의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3, 4세 유아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7곳의 3, 4세 유아 160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부속유치원(1995)의 기본생활습관 질문지와 Schaefer에 기초한 박두미(2004)의 부모양육태도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은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났다.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중요했지만 이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모가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라도 특히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관련해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기본생활습관, 양육태도, 부모의 인식, 유아

* 본 논문은 2010년 한양여자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교신저자): 한양여자대학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ssong216@hywomian.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어른에게 예의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과 이들을 방관하는 부모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지만을 강조함으로써 인성 및 사회성 발달과 직결되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본생활습관이란 혼자서 옷 입고 벗기, 청결과 같은 자조 기술 뿐 아니라, 물건 아껴쓰기와 같은 절제, 차례 지키기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질서, 예절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를 몸에 익혀 습관화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습관은 주위 환경에 적응해 가는 일정한 생활 행동의 반복으로 형성되는데, 한번 습관화된 행동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유아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은 평생을 두고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규수, 2000). 특히 유아기는 인지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시기로 의식주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기본생활습관과 태도를 갖추게 된다(이은화, 이경우, 1987). 이러한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된 유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적응이 원만하여 성장 후 사회에 잘 적응하고 봉사하며 능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김재은, 이성진, 1980). 이처럼 유아기에 있어서 기본생활습관은 건강한 신체와 함께 자립심과 독립심의 기초가 되며, 후의 성격, 가치관의 기초가 된다는 점(Richard & Light, 1986)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본생활습관을 어떻게 길러주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서도 형성되지만, 특히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생활습관은 유아의 최초의 교육 장소인 가정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의 가치관, 태도, 행동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재은, 1984). 유아의 생활습관은 부모의 철학적, 문화적 양식이나 가치에 따라 유아에게 옳고 그른 것을 확립시켜줌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유아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생활습관을 학습하며, 후에 이러한 유형의 몇몇 습관들은 내면화되어 가치체계의 일부가 된다. 최근 3, 4세 유아의 예절, 절제, 청결 습관의 중요성을 어머니가 높게 인식할수록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더 바람직하게 형성되었다는 변형선과 김송이(2011)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에도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자녀의 실제 기본생활습관 형성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형선과 김송이(2011)의 연구에서 3세 유아의 경우 예절과 질서 습관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관련이 있었으나, 어머니와 달리 4세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아버지의 인식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5세 유아의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인식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유아의 실제 기본생활습관 형성도와 관련이 있으나, 이는 기본생활습관의 하위 영역별로, 유아의 연령별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따라 관련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과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성과 같은 유아 개인 변인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 변인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있어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일관되게 여아가 남아보다 기본생활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옥희(2000)와 박분례(1996)는 공통적으로 청결 습관과 관련하여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고, 이영일(1999)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청결과 질서 습관이 높았다고 하였다. 김규수(2000)는 여아가 남아보다 청결, 질서, 예절 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박정환(1998)과 황인옥(2004)도 여아가 남아보다 기본생활습관의 형성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아의 성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에 차이가 있고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간의 관계를 유아의 성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버지는 딸에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허용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부모가 남아와 여아에게 다르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선행연구들(김현숙, 1997)에 기초할 때, 부모가 기본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과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으로 학자들은 대체로 애정의 정도, 통제의 정도, 혹은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이나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행동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되게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면서 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협조성, 사회적 활동성 등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정아, 1990; Sharpe, 1994). 특히 여러 연구들

(김해영, 2001; 민영기, 1999; 송세정, 1999)의 결과에서도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있어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일 때 유아는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을 흡수하고자 동일시를 하게 되므로(김재은, 1984), 부모 양육태도를 통해 전달되는 애정과 같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습관 형성에 있어 중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Elkin(1978)도 유아가 사회적 행동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인지의 과정은 아니며 정서적 애착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강조하므로 유아와 부모간의 친밀한 관계는 습관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유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타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리고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모델로 하도록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현정(2009)은 부모의 훈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설득적인 훈육태도로 대할 때 자녀의 청결과 절제 습관 형성정도가 높았으며, 질서와 예절 영역에서는 부모가 무관심이나 거부적인 태도로 대한다 해도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잘 실천되고 있었다고 하여 선행연구 결과와는 약간 차이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이론들을 살펴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를 양육태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녀양육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 어머니 외에 유아기에 있어 어머니와 동등한 아버지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핵가족화와 함께 가족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의 행동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양득주, 1988; 최경순, 1995). 노현미(1999)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이나 습관에 제한을 많이 하면 아동들은 모든 생활에서 참여정도가 소극적으로 나타나며, 아버지가 아동을 합리적으로 지도하면 아동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자세를 습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Lamb(1981)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관심, 애정적, 수용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최근 송효숙(2009)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자녀의 절제와 질서 영역과, 거부적 태도는 절제 영역과, 자율적 태도는 예절과 질서 영역과, 통제적 태도는 질서, 예절 영역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성에 비추어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에 어떻게 구분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해영, 2001; 송세정,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실

제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안현정, 2003, 정현진, 2003),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변형선, 김송이,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기본생활습관 인식과의 관련성을 유아의 성에 따라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따라 구분하여 그 기제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에 따라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및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자녀의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과 양육태도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과 양육태도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중류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임의 표집한 7곳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 4세 유아 160명의 부모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는 직장보육시설이 3곳, 구립보육시설이 4곳이었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은 3세가 81명(36.2%), 4세가 79명(35.3%)이었고, 남아가 77명(48.1%), 여아가 83명(51.9%)이었다.

2. 연구도구

1) 부모 양육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수정, 보완한 박두미(2004)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거부, 자율, 통제적 태도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12문항씩 총 48문항,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에 관심을 두고 두 가지 하위 영역만 사용하였다.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지의 문항내용은 같으나 문항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여 응답과정에서 부모들이 서로의 응답 내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하위 영역의 총점이 높을수록 그 해당 영역의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적 양육태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어머니는 .81, 아버지는 .84였으며, 자율적 양육태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어머니는 .65, 아버지는 .62로 나타났다.

2)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부모의 중요성 인식

본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1995)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를 수정한 변형선과 김송이(2011)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부모의 중요성 인식 질문지는 예절(7문항), 질서(5문항), 절제(11문항), 청결(6문항)의 4개 영역,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평정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의 7점)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지는 문항 내용은 같지만 문항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여 응답과정에서 부모들이 서로의 응답 내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였다.

예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예의범절로, 웃어른에 대한 예절과 일상생활에서의 예절로 구분된다. 질서는 집단생활을 위한 공공 규칙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지켜야 함을 이해시켜 행동으로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문항 예: 어린이집이나 가정으로 등 하원시 교사나 어른께 인사한다). 질서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 지키기, 차례 지키기로 구분된다(문항 예: 차례를 지켜 줄을 선다). 절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으로, 아껴 쓰기와 아껴 쓰는 방법 알기와 장소나 상황에 따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표현하기, 스스로 행동하기로 구분된다(문항 예: 물건에 따라 아껴

쓰는 방법을 알고 아껴쓴다). 청결은 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로 자신의 몸을 청결히 하기, 생활 주변에 대한 청결로 구분된다(문항 예: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영역별 점수를 합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 인식 총점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5로 높게 나타났다.

3)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교사가 평정하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는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와 문항 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하위 영역의 점수가 높은 유아일수록 그 영역의 기본생활습관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의 하위 영역에 대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는 예절 .84, 질서 .87, 절제 .90, 청결 .8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질문지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3, 4세 유아 12명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들의 담임교사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후 약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부모용 질문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7곳을 방문하여 각 어린이집의 3, 4세반 담임교사가 유아를 통해 배부 및 회수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는 대상 유아의 담임교사들이 직접 평정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과 연령에 따른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성별로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가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과 애정적, 자율적인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의 중요성 인식 총점과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집단에 기초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 중앙값을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 인식의 평균은 5.73, 아버지는 5.82로 본 도구가 7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3, 4세 유아를 둔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중요성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애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어머니의 평균은 3.36, 아버지의 평균은 3.17로 본 도구가 5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애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_{159}=7.90, p<.001$). 자율적 양육태도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평균은 3.44, 아버지의 평균은 3.33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자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_{159}=7.90, p<.001$).

표 1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N=320)

변인	사례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중앙값	t
중요성 인식	모 160	3.54~7.00	5.73(.65)	5.76	-1.59
	부 160	3.77~7.00	5.82(.66)	5.86	
애정적 양육태도	모 160	2.79~3.96	3.36(.22)	3.33	7.90***
	부 160	2.54~3.79	3.17(.23)	3.17	
자율적 양육태도	모 160	2.50~4.14	3.44(.30)	3.45	3.89***
	부 160	2.68~4.45	3.33(.31)	3.32	

*** $p<.001$ 임.

또한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의 중요성 인식과 양육태도 점수를 기초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각 변인의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 인식의 중앙값 5.76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집단은 중요성 인식 저 집단으로, 높은 집단은 중요성 인식 고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경우에도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 인식의 중앙값 5.86을 중심으로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의 중앙값 3.33보다 낮은 집단은 저 집단, 높은 집단은 고 집단으로, 자율적 양육태도의 중앙값 3.45보다 낮은 집단은 저 집단으로, 높은 집단은 고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경우에도 애정적 양육태도의 중앙값 3.17, 자율적 양육태도의 중앙값 3.32를 중심으로 저 집단과 고 집단을 구분하였다.

2.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에서의 차이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교사가 평정한 3, 4세 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은 3.13에서 3.96 정도로 기본생활습관이 보통 이상 정도의 수준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절제, 질서, 청결 습관의 경우, 유아의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여($F_{(1,156)}=27.00, p<.001$; $F_{(1,156)}=37.96, p<.001$; $F_{(1,156)}=21.89, p<.001$),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절제, 질서, 청결 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

또한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예절 습관의 경우, 유아의 성에 따른 주효과($F_{(1,156)}=26.60, p<.001$)와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_{(1,156)}=4.49, p<.05$)가 유의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예절 습관이 더 잘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3세보다는 4세에서 여아와 남아의 예절습관 형성 정도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이처럼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에 있어 여아와 남아 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분석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해서 검증하였다.

표 2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의 이원분산분석(N=160)

	3세			4세			전체		
	남 (n=44)	여 (n=37)	전체 (n=81)	남 (n=33)	여 (n=46)	전체 (n=79)	남 (n=77)	여 (n=83)	전체 (N=160)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절	3.33 (.63)	3.67 (.45)	3.49 (.58)	3.27 (.54)	3.89 (.63)	3.63 (.67)	3.31 (.59)	3.79 (.56)	3.56 ^a (.63)
예	3.48 (.63)	3.75 (.41)	3.60 (.56)	3.32 (.56)	3.96 (.54)	3.70 (.63)	3.42 (.60)	3.87 (.50)	3.65 ^{a,ab} (.59)
질	3.19 (.69)	3.66 (.47)	3.40 (.64)	3.13 (.73)	3.93 (.65)	3.59 (.78)	3.17 (.70)	3.81 (.59)	3.50 ^a (.72)
칭	3.29 (.66)	3.61 (.57)	3.44 (.64)	3.31 (.61)	3.92 (.62)	3.66 (3.68)	3.30 (.63)	3.78 (.62)	3.55 ^a (.67)

^a 유아의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음.

^{ab}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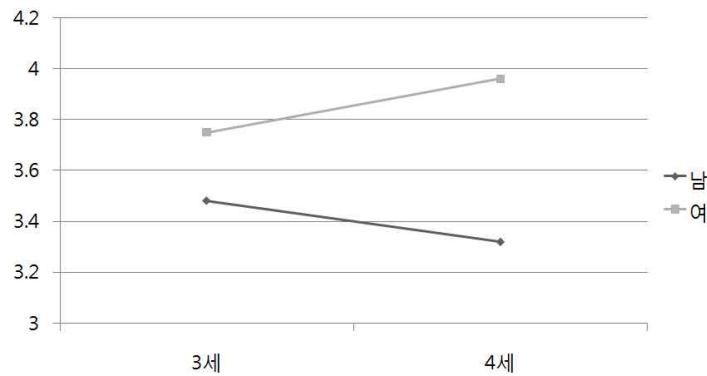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예절

3.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 및 양육태도에 따른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 정도 및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에 따라 3, 4세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4 참고).

1)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 및 양육태도에 따른 남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교사가 평정한 남아의 절제와 예절, 질서 습관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애정적 양육태도와 중요성 인식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_{(1,73)}=5.93, p<.05; F_{(1,73)}=4.20, p<.05; F_{(1,73)}=8.04, p<.05$). 아래 그림 2, 3, 4에서 보듯이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는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도와 애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서, 어머니의 인식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남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태도를 사용하는 남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남아에 비해 절제, 예절, 질서 습관이 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본생활습관 중요성 인식 집단과 어머니 양육태도 집단에 따른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N=77)

양육태도	기본생활습관 중요성 인식	절제	예절	질서	청결
		M (SD)	M (SD)	M (SD)	M (SD)
애 정 적 양 육 태 도	저 집단(n=26)	3.02 (.62)	3.21 (.70)	2.83 (.77)	2.03 (.61)
	고 집단(n=16)	3.49 (.54)	3.56 (.45)	3.38 (.61)	3.46 (.53)
	전체 (n=42)	3.20 (.63)	3.34 (.63)	3.04 (.76)	3.13 (.63)
자 율 적 양 육 태 도	저 집단(n=16)	3.53 (.48)	3.52 (.58)	3.50 (.68)	3.66 (.58)
	고 집단(n=19)	3.36 (.57)	3.41 (.54)	3.17 (.52)	3.37 (.57)
	전체 (n=35)	3.44 (.53)	3.50 (.56)	3.32 (.61)	3.50 (.59)
애 정 적 양 육 태 도	저 집단(n=27)	3.09 (.59)	3.21 (.61)	2.92 (.77)	3.07 (.68)
	고 집단(n=15)	3.44 (.61)	3.65 (.72)	3.39 (.79)	3.44 (.68)
	전체 (n=42)	3.21 (.62)	3.36 (.68)	3.09 (.80)	3.21 (.69)
자 율 적 양 육 태 도	저 집단(n=20)	3.35 (.56)	3.41 (.40)	3.19 (.54)	3.33 (.52)
	고 집단(n=15)	3.51 (.54)	3.56 (.61)	3.36 (.61)	3.52 (.58)
	전체(n=35)	3.42 (.55)	3.48 (.50)	3.26 (.57)	3.41 (.55)

또한 남아의 청결 습관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주효과 ($F_{(1,73)}=5.58, p<.05$)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중요성 인식간의 상호작용 효과 ($F_{(1,73)}=9.18, p<.01$)가 유의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아가 더 청결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차이가 나서 어머니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의 중

요성에 대해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따라 남아의 청결 습관의 형성 정도가 차이가 없었으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사용하는 집단의 남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청결한 습관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아의 예절과 질서 습관에서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F_{(1,73)}=4.54, p<.05$; $F_{(1,73)}=3.90, p<.05$). 즉 어머니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남아의 예절과 질서 습관이 더 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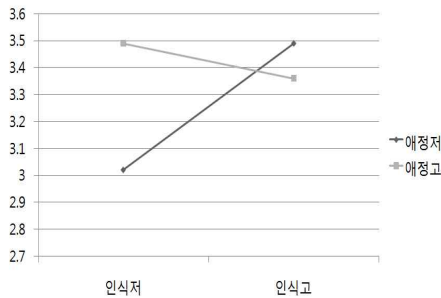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과 애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남아 청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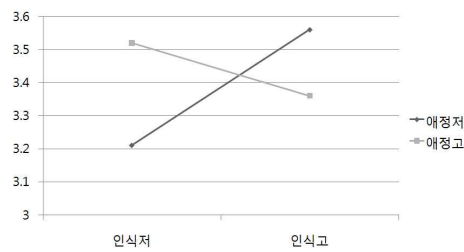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과 애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남아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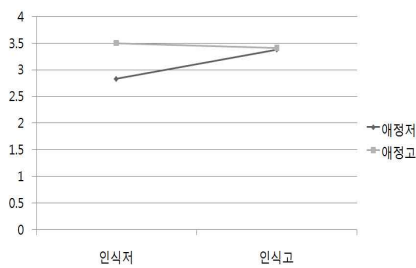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과 애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남아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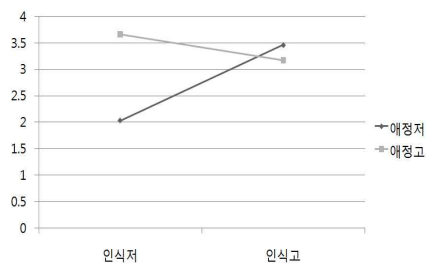


그림 5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과 애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남아 청결

2)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 및 양육태도에 따른 여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교사가 평정한 여아의 절제와 청결 습관에서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F_{(1,73)}=5.24, p<.05$; $F_{(1,73)}=5.85, p<.05$). 즉 어머니가 기본생활습관

을 중요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여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절제와 청결 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 여아의 예절, 질서 습관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기본생활습관 중요성 인식 집단과 어머니 양육태도 집단에 따른 여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N=83)

양육태도	기본생활습관 중요성 인식		절제	예절	질서	청결
			M (SD)	M (SD)	M (SD)	M (SD)
애정적 양육태도	저	저 집단(n=24)	3.66 (.49)	3.80 (.42)	3.66 (.46)	3.65 (.59)
		고 집단(n=21)	3.97 (.70)	3.93 (.60)	3.99 (.73)	3.98 (.74)
		전체 (n=45)	3.80 (.61)	3.86 (.51)	3.81 (.62)	3.80 (.68)
고 양육태도	저	저 집단(n=14)	3.62 (.58)	3.79 (.52)	3.76 (.58)	3.55 (.54)
		고 집단(n=24)	3.88 (.46)	3.92 (.48)	3.83 (.55)	3.87 (.52)
		전체 (n=38)	3.78 (.52)	3.87 (.49)	3.80 (.55)	3.75 (.54)
자율적 양육태도	저	저 집단(n=23)	3.58 (.57)	3.79 (.41)	3.72 (.47)	3.70 (.56)
		고 집단(n=16)	3.97 (.63)	3.99 (.58)	4.02 (.56)	4.00 (.63)
		전체 (n=49)	3.79 (.63)	3.90 (.51)	3.88 (.54)	3.86 (.61)
고 양육태도	저	저 집단(n=15)	3.74 (.41)	3.80 (.51)	3.65 (.56)	3.47 (.56)
		고 집단(n=19)	3.85 (.51)	3.83 (.47)	3.75 (.71)	3.81 (.63)
		전체 (n=34)	3.80 (.47)	3.82 (.48)	3.71 (.64)	3.66 (.62)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도 애정적 양육태도와 유사하게 여아의 절제, 청결 습관에서 어머니의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 인식에서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F(1,73)=4.106, p<.05$; $F(1,73)=5.786, p<.05$). 즉 어머니가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집단의 여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절제와 청결 습관을 더 잘 형성하였다. 여아의 예절, 질서 습관의 경우,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 중요성 인식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4.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 및 양육태도에 따른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 정도 및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에 따라 3, 4세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6 참고).

1)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 및 양육태도에 따른 남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절제와 질서 습관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가 평정한 남아의 예절 습관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중요성 인식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1,73)=7.30, p<.01$). 즉, 그림 6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애정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절 습관이 잘 형성되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중요성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더 커서 아버지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의 남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예절 습관이 더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청결 습관과 관련하여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에서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73)=5.70, p<.05$). 즉 아버지가 기본생활습관에 대해 인식을 많이 하는 집단의 남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청결한 습관을 더 많이 형성하였다.

표 5 기본생활습관 중요성 인식 집단과 아버지 양육태도 집단에 따른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N=77)

양육태도	기본생활습관 중요성 인식	절제	예절	질서	청결
		M (SD)	M (SD)	M (SD)	M (SD)
애정적	저 집단(n=22)	3.02 (.65)	3.08 (.60)	2.95 (.75)	3.04 (.70)
	고 집단(n=16)	3.40 (.52)	3.54 (.48)	3.34 (.59)	3.52 (.68)
	전체 (n=38)	3.18 (.62)	3.27 (.59)	3.12 (.70)	3.24 (.72)
양육태도	저 집단(n=18)	3.39 (.54)	3.69 (.51)	3.27 (.83)	3.25 (.52)
	고 집단(n=21)	3.45 (.55)	3.44 (.63)	3.17 (.61)	3.44 (.55)
	전체 (n=39)	3.43 (.54)	3.55 (.59)	3.22 (.71)	3.35 (.54)
자율적	저 집단(n=23)	3.13 (.66)	3.30 (.70)	3.08 (.72)	3.08 (.60)
	고 집단(n=17)	3.49 (.43)	3.48 (.53)	3.26 (.66)	3.55 (.64)
	전체 (n=40)	3.28 (.59)	3.38 (.63)	3.16 (.69)	3.28 (.66)
양육태도	저 집단(n=17)	3.27 (.58)	3.44 (.55)	3.12 (.90)	3.21 (.67)
	고 집단(n=20)	3.39 (.62)	3.48 (.61)	3.23 (.56)	3.42 (.57)
	전체 (n=37)	3.33 (.60)	3.46 (.58)	3.18 (.72)	3.3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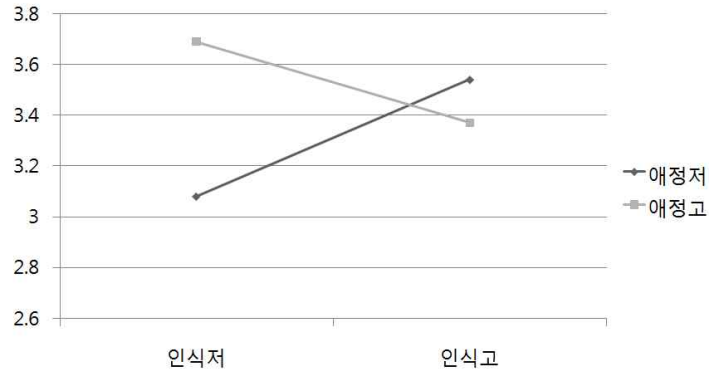


그림 6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과 애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남아의 예절

그리고 남아의 절제, 예절, 질서 습관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남아의 청결 습관과 관련하여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에서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73)}=5.10, p<.05$). 즉 아버지가 기본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남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청결한 습관을 더 많이 형성하였다.

2)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 및 양육태도에 따른 여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절제, 예절, 질서 습관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청결 습관에서만 아버지의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73)}=4.69, p<.05$). 즉 아버지가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여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청결 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여아의 절제, 질서, 청결 습관에서 아버지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73)}=4.23, p<.05$; $F_{(1,73)}=5.07, p<.05$; $F_{(1,73)}=4.03, p<.05$). 즉 아버지가 절제, 질서, 청결에 관한 기본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집단의 여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절제, 질서, 청결 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 예절 습관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기본생활습관 중요성 인식 집단과 아버지 양육태도 집단에 따른 여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평균과 표준편차(N=83)

		기본생활습관	절제	예절	질서	청결
		중요성 인식	M (SD)	M (SD)	M (SD)	M (SD)
양육태도	저 집단(n=22)		3.64 (.51)	3.82 (.52)	3.61 (.61)	3.54 (.61)
	고 집단(n=21)		3.99 (.52)	3.95 (.59)	3.96 (.64)	3.97 (.60)
	전체 (n=43)		3.81 (.54)	3.88 (.50)	3.78 (.65)	3.75 (.64)
양육태도	저 집단(n=18)		3.70 (.53)	3.80 (.36)	3.76 (.39)	3.73 (.56)
	고 집단(n=22)		3.83 (.65)	3.88 (.60)	3.90 (.61)	3.88 (.64)
	전체 (n=40)		3.91 (.59)	3.85 (.50)	3.84 (.52)	3.81 (.60)
양육태도	저 집단(n=25)		3.72 (.54)	3.83 (.49)	3.72 (.59)	3.58 (.63)
	고 집단(n=26)		3.89 (.62)	3.87 (.57)	3.85 (.63)	3.95 (.60)
	전체 (n=51)		3.81 (.58)	3.85 (.52)	3.78 (.61)	3.77 (.64)
양육태도	저 집단(n=15)		3.58 (.48)	3.78 (.39)	3.60 (.40)	3.70 (.52)
	고 집단(n=17)		3.93 (.57)	3.98 (.51)	4.06 (.60)	3.88 (.65)
	전체 (n=32)		3.77 (.55)	3.89 (.46)	3.84 (.56)	3.80 (.5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 4세 유아의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절제, 질서, 청결, 예절 습관이 더 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남아보다 여아의 기본생활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는 결과는 안현정(2003), 김규수(2000), 박정환(1998) 등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이는 생애 초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전반적인 발달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신체 조절 능력이 더 갖추어져 있기 때문일 수

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아보다 여아가 부모나 교사 등 성인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지녔기 때문일 수 있다(이영일, 1999). 또한 박옥희(2000)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가 점차 향상되어서 특히 3세와 4, 5세간에 수준 차이가 크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겨울로 3세의 경우 4세 초반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일 수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기본생활습관 발달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는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도와 애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서, 어머니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사용할수록 남아의 기본생활습관이 더 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의 주효과만이 절제 및 청결 습관에서 유의해서, 어머니가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여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절제와 청결 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중요성 인식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과 애정적 양육태도의 영향은 남아와 여아에게 다르게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는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중요성 인식도 중요하였지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자율적일 때 유아의 사교성과 친사회성이 가장 높았다고 한 김민선과 김진선(2010)의 연구 결과와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자녀가 청결과 절제 습관을 더 잘 형성했다고 한 정현진(2003)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양육에 있어 애정적이며 적절한 참여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가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 습관을 보일 수 있으며(Sharpe, 1994), 부모로부터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격려해주는 양육을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Putallaz & Heflin, 1990)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잘 되었을 수 있다. 애정 지향적인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추론, 설명, 논의, 언어적 부인 등에 의해 가치를 전달하고, 자녀의 동기에 대해 조사도 하고 교정 행동을 제시하고 강화하기도 한다고 한 Rubinstein(1975)의 연구 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할 수 있다(남궁달화, 1999, 재인용).

한편 위의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더디다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발달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중요

성이 더욱 대두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인식도 낮고 애정적이지 않을 경우 남아의 기본생활습관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일방적인 훈육보다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특성에 따른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살펴본 경우, 예절 습관에서만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중요성 인식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해서, 아버지가 기본생활습관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상관없이 비슷하였으나,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애정적 양육태도를 사용할수록 남아의 예절 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 그리고 남아의 청결 습관과 관련하여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아버지 중요성 인식에서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아버지가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남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청결한 습관을 더 많이 형성하였다. 여아의 경우에는 절제, 질서, 청결 습관에서 아버지의 중요성 인식의 주효과가 유의해서 아버지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여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절제, 질서, 청결 습관이 더 잘 형성되었다.

이처럼 어머니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특성이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도 차별적으로 나타났는데, 여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버지가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만이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남아의 경우에는 예절 습관에서만 중요성 인식과 애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영역과 관련해서 아버지들이 예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김양호(2005)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의 자녀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강조한 김정신(200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별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송효숙, 2009; 이미향, 2004)도 보고되고 있으나, 아버지는 딸에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허용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아의 기본생활습관에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에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특성이 더 관련이 있었다. 특히 노현미(1999)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 및 습관에 제한을 많이 하면 아동들은 모든 생활에서 참여 정도가 소극적이었고, 아버지가 아동을 합리적으로 지도하면 아동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자세를 습득한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지만, 위의 결과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관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자녀가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되었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나, 자율적인 부모를 가진 자녀는 공격적이고 잘 복종하지 않으며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영미(1996)의 연구 결과와는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 김현정(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녀의 예절과 질서 습관과 관련해서 자율적인 설득적 훈육태도보다는 애정 철회적 훈육태도가 더 효과적이었다. 오히려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예의바르고 단정하며 온순하다는 연구 결과(Symonds, 1949)에서와 같이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통제라는 것이 단순히 지배, 처벌, 억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생활습관을 습관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칙을 제시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정현진, 2003). 통제라는 것이 반드시 지나치거나 처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통제적 부모는 자녀가 규칙을 잘 지킨다는 김재은과 이영자(1993)의 주장처럼, 자율적으로 자녀가 선택하게 하는 양육태도보다는 적절한 규칙을 제시하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과는 더 관련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인 3, 4세 시기가 아직은 타율적인 도덕성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습관 형성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파악한 Locke는 아동기는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로 성인의 지도를 받는 타율적인 습관화에 의존해서라도 도덕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동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습관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성으로 욕망을 절제하고자 해도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다스림, 즉 자율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전제아, 2001).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여아에 비해 남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가 낮아서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중요한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중요했지만 부모가 기본생활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라도 특히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남아의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바람직한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모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에서 이러한 성 차이를 고려할 때 특히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남아에 대한 지도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와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질문지는 부모의 자기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행동이 완전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 중에서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만을 살펴보았는데, 자율적 양육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적 양육태도 도구의 신뢰도가 .65, .62로 낮아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연령이 3, 4세로 어려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에 다음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대상 연령에 따른 비교가 필요하며, 특히 자율과 통제적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연령에 따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만 양육되거나 반일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과는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관련하여 양육 유형에 따른 부모와 교사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본생활습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애정적 양육태도가 남아와 여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기본생활습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이것이 부모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관에서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가정과 연계할 때 유아의 성과 어머니, 아버지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교육자료 개발도 필요로 된다.

참 고 문 헌

- 고영미. (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규수. (2000).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그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229-252.
- 김민선, 김진선. (2010).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여부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2), 29-38.
- 김양호. (2005).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은. (1984). **유아의 발달심리**. 서울: 창지사.
- 김재은, 이성진. (1980).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재은, 이영자. (1993). **유아사회교육**. 서울: 교문사.
- 김정신. (2000).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아.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석사학위 논문.
- 김혜영.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9). 부모의 훈육태도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궁달화. (1999). 기본생활규칙의 도덕적 습관형성을 위한 지도방법. **사회과학교육연구**, 3, 1-18.
- 노현미. (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과의 관계.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민영기. (1999).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관한 연구: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두미.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분례. (1996). 부모참여 및 교육을 통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증진 효과. 원광대학

- 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옥희. (2000). 유아의 발달수준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박정환. (1998). 유치원과 초등 1년 및 2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형선, 김송이. (2011).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33-141.
- 송세정. (199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한양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효숙. (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현정.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득주. (198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취학전 아동의 성특성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향. (200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일. (1999).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관한 연구: 몬테소리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 이경우. (1987). **한국 어머니의 유아 사회성 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1995). **기본생활습관 평가도구 개발**. 서울: 이화여대사범대학 부속유치원.
- 전제아. (2001). 도덕교육에 있어서 습관과 자율성의 관계: Locke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4(1), 209-221.
- 정현진.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 (1995).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인옥. (2004). 유치원 교육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Elkin, D. (1978). *Miseducation influenc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Y: Alfred A. Knopf.
- Lamb, M. E.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 M. E. Lamb(Eds.),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189-216).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Richard, M., & Light, P. (1986). *Children of a social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84.
- Sharpe, P. (1994). A study of some and school factors which influence the social behavior of some pre-schoolers in Singapo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04, 23-39.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Teachers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hildren's basic habits formation by their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 and their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basic habi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0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s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arental features on children's basic habits formation were significant different by children's sex. Girls' basic habits were significant different by their mother's and father's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basic habits. On the other hand, boy's basic habits were significant different by mother's and father's affectionate parenting and their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basic habits. Especially, boys whose parents did not consider important their children's basic habits formed higher level of basic habits in case that their mothers showed affectionate parenting. Also,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basic habits by autonomous parenting.

Key words : basic habits, parenting style, parents' recognition, children